

학부모 급식소위원회 회의내용 요약

- 일시: 209년 12월 27일 12:30
- 장소: 학교 도서관 제1교실
- 참가인원: 학부모 급식소위원회 위원 등 약 50여명

1. 급식 관련 매체 보도문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정정보도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2. 일부 학부모가 주장하는 급식실 불시 점검 요구사항은 현재 학부모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자재검수나 학부모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급식실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식자재 검수는 영양사에게 믿고 맡기고 학부모는 모니터링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4. 학부모모니터링 제도는 전체(초등1학년부터 고등3학년까지) 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5. 식중독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하여서는 추후 학교에서 매뉴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매뉴얼에 따라 문제해결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매뉴얼을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경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6.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경우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단체급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자녀가 특이체질이거나 식성이 특별한 경우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다.

7.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국제학교 및 로컬학교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학생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엄격한 출입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학부모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지하게 된 사실 중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마치고 식판을 반환할 때 세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던데 가정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9. 급식소위원회 회의를 매 학기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와 학부모간 급식운영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면서 학교와 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길 바란다.

10. CJ(급식운영 외주업체)가 이번학기까지만 본교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피력함.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사항

- 일시: 2019년 12월 27일 14:30
- 장소: 학교 도서관 제1교실
- 참가인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간사

1.학부모급식소위원회 협의과정에서 CJ(급식운영 외주업체)가 언급한 2020학년도에는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표명과 관련하여 학교가 CJ에게 공문발송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협의함.

2.CJ가 급식 중단 통보를 해오는 경우 방학 전에 2019학년도 급식 수급자인 학생(초등은 가정통신문 발급, 중고등 및 교직원은 학교에서 설문 실시)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CJ 업체의 급식운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협의함.

3.설문조사결과 대부분(7~80%)의 학부모가 CJ 업체가 급식을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 업체에게 남은 계약 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촉구서를 발송하기로 협의함.

4.급식실 운영과 관련해서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및 매년 실시하는 급식만족도설문조사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부모 및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운영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을 급식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체에 건의하는 것을 협의함.

5.학부모가 건의사항을 탑재할 때는 자녀이름 및 본인 이름을 실명으로 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게시판에 올라 온 안건은 일정 인원수 이상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함.